

## 성공사례 2 獨 에를랑겐

# 전통 대학 도시에 지멘스 이전해 시너지 효과 유명 연구소 추가 유치해 '獨 실리콘밸리' 추진

윤예나 기자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의 에를랑겐(Erlangen)은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도시다. 인구가 10만8000여명(2015년 기준)이니 서울 중구 인구(13만4000여명)보다도 적고, 도시 전체 면적은 75km<sup>2</sup>로 서울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생활과 교육 수준이 높기로 독일 내에서 손꼽힌다. 독일 전체 도시 가운데 정부보조금 생활자 비율이 가장 낮고(3% 미만), 전체 주민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이 도시를 독일에서 가장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뽑기도 했다. 중세 시대부터 학술 도시로 명망이 높던 에를랑겐의 경제력을 끌어올린 비결은 수십년 동안 이어온 지역 정부와 기업, 대학의 긴밀한 협조다.

### 지멘스, 명문대 출신 인재 흡수

에를랑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1949년부터 이곳에 헬스케어 부문 본사를 비롯, 소속 자회사의 대표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지멘스(Siemens)다. 1960년대 초반에는 1억마르크를 투자해 에를랑겐 변두리를 산업단지로 바꿨다. 현재 이 산업단지는 전 세계 지멘스 연구산업 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오랜 기간 터를 잡은 덕분에 이 지역 주민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만5000여명이 지멘스 소속 직원일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 독일 바이에른주와 에를랑겐시, 지멘스가 2030년 목표로 추진하는 '에를랑겐 지멘스 캠퍼스 프로젝트'의 조감도 일부. (사진: 지멘스)

당초 지멘스의 본사 이전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흥흥한 베를린을 떠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독일 최고 명성의 대학도시에 자리를 잡은 덕분에 오히려 더 큰 동반성장 효과를 누리게 됐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졸업 직후 곧바로 흡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생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생에게는 지멘스 취업 혜택을 주는 등의 프로그램도 일찌감치 마련했다.

바이에른을 최고의 투자입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시행한 바이에른 주정부와 에를랑겐시의 적극적인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지멘스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기술 기업의 연구 시설, 공장 건설을 빠르게 승인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1996년 1억유로가 들어간 지멘스 의료기기 공장 설립 당시에는 영국 옥스퍼드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에를랑겐 정치인과 정부가 함께 나서 공장 설립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리고 지멘스의 공장 설립 허가를 단 6주 만에 내주며 투자 유치가 성공했다. 이후 ▶

▶ 에를랑겐은 독일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가 선정한 '독일 혁신 수도', <포커스>가 선정한 '창업가의 파라다이스' 등으로 꼽히는 등 독일에서 손꼽히는 산업 도시로 발돋움했다.

현재 에를랑겐시와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멘스와 손잡고 새로운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지멘스 캠퍼스 에를랑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5억유로(약 6254억원)를 투자해 기존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도시 전체를 첨단연구도시로 재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이 프로젝트 역시 투자 주체인 지멘스와 에를랑겐시, 바이에른 주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로 진행되고 있다.

바이에른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뒤 지멘스 캠퍼스에 급행전철역을 새로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했고 에를랑겐시는 다양한 건축규제를 바꿔 재개발 지원에 나섰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살기 좋은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에를랑겐을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지멘스 핵심 연구기관과 교육센터, 에를랑겐 대학 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유치해 '독일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



▲ 지멘스 창립자 베르나 지멘스가 1847년 에를랑겐에 세운 의료기술업체 라이니거, 게버트&살(RGS)의 1920년 모습. 지멘스의 전신이다. <사진: 지멘스>

## INTERVIEW 백한열 에를랑겐 프로젝트 디자인 총괄 디렉터

# “녹지 넉넉한 최첨단 연구단지 건설”



2030년까지 5억유로가 투입되는 지멘스 캠퍼스 프로젝트는 건축업계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세계 각국의 쟁쟁한 건축사 사무소가 도전장을 냈

고 2014년 말 선정된 12곳의 최종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2015년 1월 최종 1위로 선발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업체는 독일 KSP 유르겐 앵겔 건축사무소. 첨단연구도시로 바뀔 지멘스 캠퍼스 에를랑겐 설계를 밀그림부터 총괄한 한국인 건축가 백한열씨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처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멘스그룹과 바이에른주, 에를랑겐시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협약을 맺은 것은 2013년입니다. 단순히 에를랑겐시에 붙어 있는 연구단지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닌, 이 지역 전체를 새로운 연구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겁니다. 다양한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해온 바이에른주가 이 지역을 독일의 실리콘밸리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 주안점을 둔 건 어떤 점인가요. “현재 지멘스 캠퍼스는 에를랑겐 변두리에 분리된 산업단지입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고 근무지가 도시

### 백한열

한양대 도시공학과 졸, 독일 슈트트가르트대 건축학 석사, 슈트트가르트 ISA 도시설계사무소, 슈트트가르트대 도시설계연구소

와 붙어 있지만 직원들은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지역을 리모델링해 에를랑겐 시민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에를랑겐 구도심과 달리 현대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세워 첨단연구도시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인상 깊게 본 점은. “투자하는 지멘스그룹과 에를랑겐시, 바이에른 주정부 관계자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도시 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번 현상공모 진행 과정에서도 설계안 발표 때마다 일반 시민 수백명을 수차례에 걸쳐 초청하고 지역방송으로 발표 모습을 내보내는 등 도시 개발 계획에서 시민이 배제되는 일을 철저히 방지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심사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됐지요. 통상 돈을 대는 투자주체와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기 마련인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율해 나가는 힘이 독일 중소도시 재개발 사업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